

■ 삶과 인생 - 문현2동 삼철리 이용원 김삼철씨

가위 하나로 가족 먹여 살렸지요

김삼철 (65·문현2동)씨는 50년 넘게 이발소를 운영하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예수를 축적 남긴 삼철씨의 삶터인 옛 문현5동사무소 맞은편 삼철리이용원을 찾았을 때는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선 이용원 내부는 마치 흑백사진을 본 듯 시간이 멈춰서 있었다.

동생의 까까머리를 연상케 하는 바리깡과 가위, 아버지의 까칠한 수업을 생각나게 하는 면도기, 세월에 깨어진 거울, 작은 타일로 꾸민 세면대에서 흘러나오는 비누향수...

모두가 유년의 추억이 깃든 모습들이어서인지 정겹게 다가온다.

그곳에 반세기가 넘도록 이웃들의 머리 손질에 매달려 온 김삼철씨가 있었다.

먼저 미용실에 밀려 차츰 자취를 감추고 있는 이용원의 현주소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자 그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얘기한다.

"한때는 정말 대단했죠. 이발소가 지금의 미용실보다 많았으니까. 먹기 살기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가위 하나로 가족들을 먹

50여년간 이발소 운영하며

자식 서울 명문대 졸업시켜

정년 없는 직업에 자부심

여 살린 게 기적이지. 그런데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용실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어 주는 곳은 이용원 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그게 세월인데 우쭐했습니까."

김삼철씨가 이발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야말로 우연 중의 우연이다.

15살 때 고향인 밀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부산을 찾았다. 객지에 나와 먹고 살기 위해 그가 택한 첫 직업은 구두 닦이였다. 그러던 중 인근 이발관 주인이 이발 기술을 배우는 게 낫다는 충고와 배려로 이용원에 처음 뛰어 들게 됐다. 그러다가 22살 되던 해 지금의 장소에서 개업해 42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이곳을 그의 일터이자 집이었다. 6평 남짓한 살림집이 딸려있는 여기에서 지금의 아내 신춘경씨와



신혼을 보냈고 2남1녀의 자녀들을 공부시켜 서울 명문대를 보냈다. 북쪽지 않은 그와 그의 가족들의 소중한 추억이 새겨있는 공간인 것이다. 김삼철씨는 창문을 바라보며 그때를 생각했다.

"생활이 어렵고 불편했지만 살만했어요. 가게 앞으로 기차가 다니고 하루방집들이 길바닥 걷지법 딱지딱지 붙어있었지요. 그 때만해도 동전통이 많아 고기도 잡아먹기도 했어요. 힘들었지만 이웃들 간에 나눠먹는 것이 넘쳐났었지요"

손님이 줄어들어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삼철씨는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보니 단골들이 많아 견딜만 하다고 한다. 이발 기술 덕분에 앞으로 5년은 더 일할 수 있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또래 친구들이 직장생활을 그만 두고 소일하는 것에 비하면 이발업을 잘 택했다고 환한 미소를 짓는다.

김삼철씨의 소망이 궁금해졌다.

"이발이 천직이 되게끔 이끌어준 지인에 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한때 우범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자라온 자식들이 고마울 뿐입니다. 소망이라 할 게 뭐있습니까. 그저 가족들 건강하고 손님과 여생을 함께 보내는 게 그게 바람이라면 바람이죠"

삼철리이용원은 오늘도 백발이 성성한 단골손님들이 하나둘 찾고 있다. 단돈 5천원이면 머리손질은 물론 면도까지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이곳에서 그들은 삶의 활력과 여유를 갖고 있다.

모두가 힘들다고 떠나는 직업을 붙들고 50년을 넘게 살아온 김삼철씨. 가위를 잡은 손이 떨려 더 이상 이발을 할 수 없을 때 조용히 은퇴해 여생을 편안히 보내겠다는 그의 말 속에서 직업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김정희 기자

■ 학제의 인물 - 친절한 24번 버스기사 김종곤씨

웃음과 사랑 실은 버스 “좋아요”



습관처럼 인사 건네고 웃음 전하며 서비스

승객들에게 최선 다하는 모습에 무한감동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웬만해서는 큰 서비스 업체에서도 듣기 어려운 인사말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 버스 기사가 있다. 용호동과 서면을 오가는 시민여객 24번 버스 기사 김종곤(53·용호3동)씨는 미소 가득한 얼굴로 버스를 오르내리는 승객들을 향해 습관처럼 인사를 건넨다.

다. 뿐만 아니라 헤드셋을 끼고 운행 중에도 손님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왕이면 하고 이 버스를 타기 위해 일부러 기다리는 승객들 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의 버스에 오르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속속 들어온다.

특히 신호가 긴 문전교차로에서의 서비스는 압권이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특히 건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버스 운전기사 김종곤입니다. 혹시 전에도 이 버스를 타셨던 손님 계십니까? 네!! 앞으로 저희 버스의 우수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승객 여러분께 송도 구름다리를 태워 드리겠습니다. 아예요. 즐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버스 몸체가 두어 번 반박하며 좌우로 기우뚱댄다. 구름다리에 오르면 느낄 수 있는, 몸이 출렁이는 짜릿한 기분이 온몸을 휘감는다. 버스의 수평을 잡아주는 기계를 이용하여, 긴 신호에 짜증이 나 있던 승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는 것이다.

김종곤씨는 27년 전, 군 제대 후 택시 운전기를 시작하며 받은 교육에서 친절을 깨닫고 실천을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 NK택시의 서비스 정신을 모토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수월인 국내 택시 업계의 사정상 다른 기사들의 협조가 적어 어쩔 수 없이 접

어야 했다. 그래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준공영인 버스 회사로 직장을 옮긴 뒤, 다시 친절서비스를 시작하여 벌써 7년째다.

클랙스 사용을 자제하고 조금 기다려 준다거나, 노선을 몰라 허둥대는 승객을 위해 육성으로 노선을 반복해 주는 김종곤 기사의 승객에 대한 서비스는 이미 여러 곳에 소개된 바 있다. KBS 1 TV의 '생생 투데이' 프로와 부산 버스 운송조합 홈페이지 '친절합시다' 코너에 단골로 오를 만큼 승객들의 호응도 대단하다. 버스에 오르면서 김종곤 기사에게 음료수를 건네는 김노한(26·전포동)씨는 승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무한 감동이라며 웃는다. 가끔 과일이며 음료수를 건네는 승객들이 꽤 된단다.

특히, 10여 년 전부터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이발 봉사까지 해왔다는 김종곤 기사는, 장애인 협회에 출근하며 봉사하는 부인과 슬하의 2남 또한 항상 이웃돕기를 생활화하고 있어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요양병원에 이발 봉사를 하는 덕분에 이발기구까지 선물하는 승객이 있다며 오히려 아름다운 사회라고 반색한다. 역시 부처의 눈엔 부처만 보이냐보다.

친원을 낸 시내버스에서 모범택시를 탄 것보다 더 큰 서비스를 느끼고 싶다면 김종곤 기사의 24번 시내 버스를 추천한다. 갑수목 번익인 부익부가 되어가는 서글픈 사회에서 시원한 사이타를 마신 듯 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을홍 기자

2010 갤러리 봄 선정 작가전

구해인 <DOSI를 걷다>



도심을 주재로한 작품 활동을 통해 촉망받고 있는 구해인(31·문현3동)의 작품전이 지난 19일부터 갤러리 봄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는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바라본 도시의 단면을 그려낸 작품 15점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예술고를 졸업한 작가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두 번의 개인전 등을 통해 도시 모습을 재해석해 화면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등에서 입선하는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해금연 주자로도 명성을 쌓고 있다.

2010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2010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전수식이 지난 6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성남 전 동장 등 8명의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의원면직자 등은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이 수 홍
(홍조근정훈장)



김 성 남
(녹조근정훈장)



전 군 찬
(녹조근정훈장)



김 태 희
(옥조근정훈장)



이 만 수
(근정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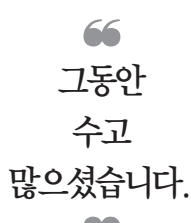
허 박 상 찬
(대통령 표창)



정 용 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장 희 경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남구청 직원 일동

황기철 해군작전사령관 취임

최고 전투능력 갖춘 해군 양성



황기철 제독(중장·해사32기)이 지난달 25일 오전 부산작전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21대 해군작전사령관 취임식에서 해군작전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찬 해군참모총

장과 버드(John M. Bird) 미7함대 사령관을 비롯한 해군주요 지휘관, 기관 및 단제장, 소속 장병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황기철 신임 해군작전사령관은 취임사를 통해 해군 작전사 장병들에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최고도의 전투능력을 구비하고 낮은 사고와 관행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 끊임없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기철 사령관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담당관, 관계토대원할 합장, 조함단 KDX-3 사업처장, 진해기지사령관, 2함대사령관, 방위사업청 합정사 업무장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 우/리/구/시/람/들

정이 넘치는 마을 가꾸기 일조

모범선행시민상 받은

이웃사랑실천모임 류제철 대표



류제철(63·감만2동) 이웃사랑 실천모임 대표가 지난 5일 허남식 시장으로부터 모범선행시민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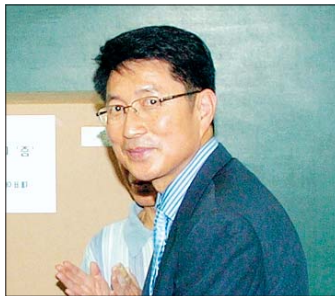
류 대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부산이 정이 넘치고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이날 상을 받았다.

류 대표는 장예의 몸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지난 99년 이웃사랑실천모임을 창립해 현재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회원들과 함께 매달 10만원씩 12세대를 후원해 오고 있으며 경로유안 잔치를 열고 명절에는 쌀을 후원하고 있다.

형설지공의 뜻 이루길

남부중·고등학교 복시기 전달

대동상사 송세우 대표



지역의 한 독자가 아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면학을 위해 복사기를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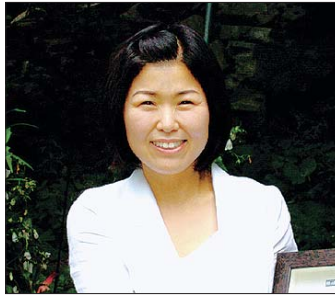
송세우(55·우암1동) 대동상사 대표는 지난 2월 저녁 문현3동에 소재한 남부중·고등학교(교장 김달현) 교실에서 200만원 상당의 복사기를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송 대표는 최근 구청 재무과로부터 남구의 대표적인 아학인 남부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노후화 된 복시기 때문에 학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최신 기종의 복사기를 구입, 전달하게 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송 대표는

전업주부에서 나비박사됐어요

성동초등학교 자연생태 체험교실

나비부스 강사 장영미씨



장영미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의 아들이 재학하고 있는 성동초등학교 자연생태 체험교실 나비부스 강사로 활동하며 보람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장영미씨는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2시간동안 학교 내에 설치된 나비부스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나비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이곳에서 그는 참여자들에게 나비가 앞에서 애벌레-송충이-성충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며 나비에 대한 기본생식을 전하고 있다.

때로는 나비의 실제 부화과정과 우화과정을 보여주며 수업의 질을 한층 높이고 있다.

전업주부에서 나비박사가 된 그녀가 봉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생태 체험교실 강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부터다. 전문 강사로부터 강의를 듣고 도서관을 찾아 스스로 공부해 나비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때로는 아이들과 나비를 직접 채집하며 이론 못지않은 실무를 익혔다. 그 결과 지금은 나비에 관련한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됐다.

그녀의 소망은 자연에 대한 공부를 더욱 꾸준히 해 체험교실 수강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수업을 하는 것이다.

김옥련 기자

주민생활민원 해결에 보람

오 록 도 친 절 지 기

용호2동 주현옥씨



용호2동주민센터 주현옥(39·행정8급)씨를 칭찬하는 친절업사의 사연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감동이었다. 70세의 이국본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백부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 동주민센터를 찾았다. 본인인 해아 하는데 직접 올 수 없어서 참으로 난감했다. 딱한 사연을 접한 주현옥씨는 다행히 병원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직접 환자가 있는 병원까지 동행해서 환자를 격려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 처리

70세 할아버지 칭찬글 보내와

감동을 받은 이국본 할아버지는 포박포박 정성들인 글씨로 친절카드를 작성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고마운 젊은이를 있음에 이웃들에게도 자랑을 했다. 또한 훌륭한 인성교육, 훌륭한 공무원이 주위에 있어서 구청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주현옥씨는 2007년 11월 조금은 늦은 나이로 공직에 첫발을

들었다. 행정학과 출신의 그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매일 접하다보니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민원이나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상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고 한다.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은 미

리 예약을 하고 시간을 내어 준다면 정성껏 답변에 응해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들직한 외모, 수줍은 듯 소박한 미소를 띤 주현옥씨의 겸손한 모습은 동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따뜻함과 친절을 자연스럽게 전해주고 있다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최정순 기자

갯골 노인정 민원 해결사

석포설비 김종길 대표

"전환한 하면 날아오는 슈퍼맨이 너무 고마워요"

석포설비 대표 김종길(57)씨는 용당동 갯골 노인정 어르신들에게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다. 그는 10년째 이곳 어르신들과 인연을 맺으며 노인정과 관련된 문제 발생하면 언제든지 달려가 어르신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고 있다. 보일러 수리, 전기 수리 심지어 수도 수리까지 무료로 해주며 어르신 공경에 나서고 있다.

그런 그이기에 어르신들 사이에선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글란 회장은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아무런 대가없이 보살펴주고 있는 김 사장이 너무나 감사하다"며 격렬한 고마움을 전했다.

김종길씨는 "우암동에서 태어나 남구에서만 57년 세월을 아무런 탈 없이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다면 다행"이라며 겸손해 한다.

갯골 노인정 슈퍼맨 김종길씨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부름을 받고 기쁜 얼굴로 노인정으로 향한다.

윤선자 기자